

# 동서악회 불가리아 방문 참가 불가리아에서 우리의 음악을 전하다

글\_ 이건용(작곡가, 아창제 추진위원장)

54<sup>TH</sup> МЕЖДУНАРОДЕН ФЕСТИВАЛ  
„СОФИЙСКИ МУЗИКАЛНИ СЕДМИЦИ“  
Фестивалът е част от Календара на културните събития на Столична община през 2023 г.

27 юни - 19:00 ч. Зала НМА

Епос за любов и раздяла  
Премиери от южнокорейски и български композитори

В програмата:  
Бокнам Ли, Юнъонг Парк  
Гонъонг Ли, Соккьн Гил  
Ънхе Ким, Ушон Ким  
Асен Аврамов, Георги Арнаугов

Съорганизатор:  
„Музикално общество  
История, Запаз“

С подкрепата на:  
Министерство на Културата, Младеж и Спорт  
Муниципалитет на София

В изпълнение на  
Сокман Юн, Дохьон Ким  
Йонсанг Гуон, Джьон Ли, Соьон Ким  
Елена Механджийска - сопран, Юрий Николов - тенор  
Свилен Денчев и Георги Димитров - баритон  
Татяна Соколова - хореограф  
Ксения Бакалова и Марина Хараламбова - танц  
Васил Василев - кавал, Теодора Атанасова - виолончело  
Даниела Янева - пиано, Мирослав Димов - перкусии

www.sofiafaweb.com

동서악회는 작년에 이어 금년도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불가리아를 방문하였다. 크게 3가지 활동을 하였다. 이는 소피아뮤직위크 국제 음악페스티벌의 초청으로 음악회 〈사랑과 이별의 서사〉 여는 일, 소피아뮤직위크 행사 중 하나인 학술대회 〈음악 이벤트 경영과 디지털 환경〉에 참여하는 일, 그리고 한국의 전통음악 연주회를 불가리아의 두 도시에서 개최하는 일이었다.

## 소피아뮤직위크 국제 음악페스티벌의 초청 음악회 〈사랑과 이별의 서사〉

54회 소피아뮤직위크 국제페스티벌이 금년 5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5주간 열렸다. 불가리아의 문화부, 소피아특별시, 국립소피아 필하모니, 국립문화궁전이 참여하는 불가리아의 가장 중요한 국제음악제이다. 작년에 동서악회가 초청받아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어 이번에도 다시 초청받게 된 것이다. 동서악회가 만든 음악회는 6월 27일 국립 판초 블라디게로프 음악아카데미에서 열렸다.

동서악회는 이 음악회를 한국과 불가리아 간의 다양한 공동작업이 이루어지게끔 기획하였다. 양국의 작곡가가 같이 참여할 뿐 아니라 양국 연주가, 양국 전통악기가 같이 참여하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 무용이 적지 않게 참여했는데 이 역시 양국 무용가들의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동과 서가 만나고 전통과 새로운 창작이 어울리며 음악과 춤과 노래가 결합되는 장이었다. 〈사랑과 이별의 서사〉라고 이름한 이 음악회의 연주곡들은 모두 아홉 곡이었다.

이건용의 「여름 정원에서(2011)」이 첫 곡으로 연주되었으며, 산조 가아금을 위한 곡으로 이지연이 연주하였다. 세계 초연은 아니지만 산조 가아금이라는 한국의 전통 악기를 위한 창작곡을 불가리아에서 초연하는 셈이어서 소피아의 청중에게는 신선하게 들렸을 것이었다. 두 번째 곡은 동서악회에서 위촉하여 세계 초연된 단소와 생황을 위한 ‘노래’로서 게오르기 아르니우도프의 작품이 연주되었다. 두 개의 한국 전통악기를 위해 불가리아 작곡가가 작곡한 작품을 한국의 연주가 윤석만(단소)과 김소엽(생황)이 연주하였다.

그 후, 고려가요 「가시리」를 가사로 만든 작품, 박윤경의 「가시리」가 연주되었다. 2022년 작품이지만, 이번 공연은 김도현의 소리, 세 명의 불가리아 성악가(유리 니콜로프, 스빌렌 덴체프, 게오르기 디미트로프)에 의한 작은 코러스, 불가리아 전통악기 카발(바실 바실레프)과 타악기(찰리 밀로프)가 같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업의 음악이었다. 불가리아의 청중들이 고려시대의 한국어 가사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김도현의 구성진 노래를 통하여 그 이별의 진한 정서를 느끼는 데에

는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다.

네 번째 곡은 김은혜의 「십이지」 연곡 중에서 「개」, 「소」, 「말」(2022년 개작)이다. 불가리아 연주가 테오도라 아타나소바(첼로)와 다니엘라 아네바(피아노)가 세 가지 동물(혹은 성격)을 표정 있게 연주하여 청중들의 호응을 받았다.

음악회의 1부 마지막 곡은 판소리 춘향가의 한 대목인 「집장가(2022)」를 길석근이 재해석한 작품으로 김도현의 소리, 길석근, 김은혜, 이복남의 장구, 윤석만의 국악타악, 김소엽의 피리 및 생황으로 다양한 한국의 장단과 가락을 보여주는 곡이었다. 이 곡에는 특히 춤이 곁들여졌는데 한국의 춤꾼 권용상, 불가리아의 무용가 크세니야 바칼로바가 한(恨), 혹은 슬픔의 정서를 몸으로 표현해 보여주었다.

휴식 후 이어진 2부의 첫 곡은 이건용의 가곡 세 편: 「사랑」(문익환 시 1983), 「밤길」(이승순 시 1999), 「겨울사랑」(고정희 시 2012)을 바리톤 스빌렌 덴체프, 소프라노 엘레나 메한지이스카, 피아니스트 다니엘라 아네바가 연주하였다. 한국어의 발음을 잘 익혀 한국어를 아는 청중이 듣기에 어색하지 않은 노래를 들려주었다.

다음 작품은 김위연의 「해어화 - 잠깐 사이의 사랑」이 연주되었으며, 카발(바실 바실레프), 25현 가아금(이지연), 타악(찰리 밀로프), 피아노(다니엘라 아네바)의 협업으로 이루어졌다. 이 곡에서는 특히 카발의 역할이 두드러졌는데 플루트 혹은 리코더에 가까운 음색에 사쿠하치, 혹은 통소의 표현력을 가미한 듯한 민속악기의 아름다움과 가

소피아뮤직위크 공연\_가시리



소피아뮤직위크 공연\_집장가



소피아뮤직위크\_한국 가곡





## 학술대회 <음악 이벤트 경영과 디지털 환경>

소피아 음악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기획된 학술 콘퍼런스는 특별강연과 <음악 이벤트 경영과 디지털 환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벌인 세미나로 이루어져 있었다. 행사장은 국립음악아카데미의 강의실이었으나 온라인으로 열려 불가리아 각지에 있는 학자 및 연구자들이 참여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었다.

특별강연에서는 한국에서 참석한 필자가 <음악의 섞임, 문화의 섞임>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고, 불가리아에서 체류하고 있는 음악학자 김수미가 통역하였다. 발표의 내용은 '부, 모의 섞임을 통하여 자식이 생기듯이 섞임의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를 통하여 종의 다양성이 확보된다. 문화도 마찬가지로 섞임을 통하여 다양해지는데 이는 한국의 역사와 그 역사에 의하여 나타난 문화의 켜에서 잘 볼 수 있으며 한 작가의 작품 속에서도 나타난다.'는 취지였다. 발표 후 청중 중 몇 사람으로부터 질문과 소감의 개진이 있었다. 그중 국립음악아카데미의 음악 역사학 교수 에밀리아 콜라로바의 "발표의 취지에 공감한다. 불가리아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역사를 통한 음악문화의 섞임이 있었고 그것이 현재의 불가리아 음악을 이루고 있다."는 발언이 좌중의 공감을 얻었다.

휴식 후에 이어진 콘퍼런스는 음악페스티벌이나 음악회를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어려운 점들을 공유하고 전략적/혁신적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자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통역이 없었으므로 이해하고 따라갈 수 없었다. 다만 몇몇 발표문의 제목과 관점이 필자의 관심을 끌었다. 우리나라에도 페스티벌과 음악 행사가 많이 열리고 이를 위한 지원의 방식과 절차도 꽤 다양한

데 이러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각 행사에 대한 유효한 평가의 방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최근에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콘퍼런스의 어떤 발제들은 페스티벌과 음악 행사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분석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듯하여 필자에게 유익한 시사를 던져주었다.

## 한국의 전통음악 연주회를 불가리아의 두 도시에서 개최

위의 두 행사 후에 진행된 일정은 한국 전통음악을 소개하는 일련의 음악회로서 불가리아의 제2 도시이자 오래된 문화도시 플로브디프와 도나우강변의 큰 도시 루세에서 있었다. <한국으로의 음악여행>이라는 제목의 이 음악회에는 <사랑과 이별의 서사>에 참여하였던 연주자들에 의한 한국 전통음악과 현지 불가리아 음악가들의 참여로 구성되었다.

한국 전통음악의 곡목은 피리 상령산(피리 김소엽),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가야금 이지연, 장구 길석근, 춤 권용상), 생소 병주(생황 김소엽, 단소 윤석만), 청성곡(대금 윤석만), 경기 민요(노래 김도현, 반주 다같이) 등 그야말로 한국 전통음악의 백미 편으로 짜여 있었다. 플로브디프의 지역 역사 박물관에서 있었던 음악회는 그곳의 음악가로 활동하고 있는 불가리아 연주가들의 참여로 더욱 풍성하였다. <사랑과 이별의 서사>에서도 연주한 바 있던 카발 연주자 바실 바실레프와 전통성악가 데니짜 바실레바, 탐부라연주자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프, 거들가 연주자 흐리스토 게오르기예프가 구성된 불가리아 민요를 연주해 주어 그곳의 청중들뿐만 아니라 한국 쪽의 참여자들에게도

민속음악의 흥과 정서에 젖어 들게 하였다.

루세의 음악학교 연주 홀에서 있었던 연주에서는 위에 언급한 한국의 전통음악과 함께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코디언 연주가 발렌틴 아네프의 민요가락이 같이 연주되었다. 두 곳에 걸친 음악회에서 한국의 전통음악을 처음 듣는 불가리아 청중들은 별로 낯설어하지 않고 반응하였으며 특히 민요를 부를 때에는 받는 소리나 동작까지도 같이 하면서 흥겨워하였다.

## 그 외에 불가리아에 방문하며 느낀 점

그 외에 불가리아를 방문하는 동안 필자가 느꼈거나 알게 된 몇몇 단편적인 일들을 여기에 남긴다.

불가리아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민속 노래와 춤을 즐기는 것 같았다. 공원에서 남녀노소가 전통음악에 맞추어 어울려 춤추는 모습을 두 번 보았다.

불가리아에서도 우리나라의 국악과 같은 전통음악을 가르치는 과정과 과목이 있음을 국립음악아카데미의 교육내용과 우리가 만난 전통음악가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제대로 참석하지는 못했으나 일정과 일정 사이의 틈에 불가리아 작곡가들의 신작 오케스트라 작품을 들을 수 있었다. 역시 소피아 뮤직 위크의 행사 중 하나였는데 최근 이 곳 작곡가들의 경향을 느낄 수 있어 유익했다. 서구의 아방가르드 경향을 따르기보다는 주로 불가리아의 전통음악과 현대적 기법을 개인적인 방식으로 결합한 작품들이 많았으며 그 중에는 팝 음악을 이용한 것도 있었다.

불가리아에서도 K-Pop의 인기를 느낄 수 있었으며 음악회를 홍보하기 위하여 출연한 euronews TV 프로그램에서 피리 연주자 김소엽은 진행자의 갑작스런 요청에 생황으로 아리랑을 연주해 들려주었다. 그곳의 교민 사회는 크지 않아 보였으나 우리의 음악회 행사에 적지 않은 분들이 참석하여 즐거워하였다. 매년 찾아와 연주행사를 열어달라는 부탁도 있었다. 또한 대사관에서의 관심과 지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랑과 이별의 서사> 음악회 행사장과 연습 장소를 제공해 준 국립음악아카데미는 1921년에 설립되어 백 주년을 넘긴 유서 깊은 학교였다. 학장(Rector) 사바 디미트로브 박사와의 면담이 있었는데 우리 쪽에서는 우선 음악회 등을 위한 장소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전한다. 또한 앞으로도 불가리아와 한국 간의 음악교류 및 음악교육 관련 교류가 원활했으면 한다는 희망을 밝혔고 학교 쪽에서 그 점에 심분 동의하였다. 학교는 학기말이 되어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듯 조용했으며 중국 학생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마지막으로 소피아 뮤직위크 국제음악페스티벌의 기획자 몸칠 게오르기예브와 동서악회 이복남 회장, 불가리아에서 활동하는 하나 아트 네트워크 김수미 대표의 공헌과 노력이 매우 컸다는 것을 기억하며 여기에 지적해 둔다. 이 세 사람의 노력으로 작년에 이어 금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만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만남에 의하여 앞으로 다양한 아름다운 음악의 변종이 많이 태어날 것이라 기대하면서 글을 마친다. 樂

이건용 초청 세미나



플로브디프 공연 후

